

“고독사 막아라” 가족 되어주는 광주 자치구

사흘간 통화 없을까·치매노인 3시간 움직임 없을 때 ‘출동’ 안심동행서비스 앱 설치...12시간 미사용땐 가족에 연락 IOT 기기로 움직임 감지...돌봄로봇 ‘효돌이’ 효과 특독

“독거 노인들의 휴대전화에 사흘 이상 통화가 없거나, 세시간 이상 치매 및 중증 환자의 움직임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출동합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에 대한 가족 방문이 줄어들며 따라 독거사 위험이 높아지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가족의 역할을 지자체가 대신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급성 심근경색 등 돌연사의 위험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26일 광주지역 자치구에 따르면 5개구는 모두 고독사 고위험군 1인 가구 및 2인 가구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는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의 휴대전화 유선전화 3일 이상 수발신 되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해당 동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한다.

남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1인 가구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장년 고위험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뒤 약 1300명으로부터 해당 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아 이미 26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산구도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1500가구에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북구는 지난해 6월부터 164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북구는 이와 함께 독거노인 휴대전화에 별도 앱(안심동행서비스 앱)을 설치, 12시간 동안 사용치 않을 경우 등록된 자녀의 연락처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이 가장 많은 두암3동·오치2동·문화동·우산동에는 IOT 기기를 설치해 움직임이 없을 경우 조치에 들어가는 응급안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 7일 KT와 업무협약 맺고 독거노인 고위험군의 건강 및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는 통합 돌봄 케어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동구는 독거노인 334가구와 중증 장애인 88가구 등 총 422가구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안전알림 체계를 구축했다.

더욱이 동구에서는 독거노인과 치매노인들에게 ‘인공지능 돌봄로봇 인형(효돌이)’을 배부해 효과를 보고 있다. 효돌이는 음성과 터치방식으로 작동, 독거노인과 치매노인들에게 식사·약복용·체조시간을 알려준다. 3~6시간 등 시간을 설정해 감지센서에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저장된 번호로 긴급 메시지가 발송돼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 인형의 귀나 손을 누르면 상황에 맞는 멘트가 나와 말뱃이 돼주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 주는 등 인지강화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우울평가 9.7에서 8.4로 수면의 질 평가는 1.92에서 0.8로 낮아지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중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동구가 독거노인과 치매노인들에게 배부한 인공지능 돌봄로봇 인형인 ‘효돌이’.

촌지 사라지는 교정

전남, 최근 5년간 적발 없어...광주 1건

광주·전남이 촌지나 불법찬조 등 악습이 거의 사라져 ‘정정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 찬조금 적발 내역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광주에서는 모 학교가 찬조금 300만원의 모금했다가 적발돼 관계자 7명이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외는 촌지 수수와 찬조금 모금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최근 5년간 촌지 수수와 찬조금

모금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광주·전남은 전교조(성향) 출신이 교육감을 맡고 있어 촌지 수수 등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는 총 63개 학교에서 촌지 수수와 찬조금 모금이 적발됐다.

배준영 의원은 “학교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자간 확립 차원에서 지우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음주운전하는 교사

5년간 전남 교원 187명·광주 79명 징계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교원이 2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187명, 광주에서는 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교사가 19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감

67명, 교장 49명, 전문직 36명(장학사·장학관) 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시도를 합쳐 23명에 불과했다. 2111명 중 1714명인 81.1%가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다.

이 같은 원인은 현재 음주운전 범죄가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 향응 수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 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5·18 3단계 희망봉사단 발대식. 5·18 3단계(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광주시청 앞 문화광장에서 ‘희망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 참석한 회원들이 5월 정신을 바탕으로 봉사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물공제조합 광주사업소가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2020. 8. 1부터 독립된 지부로 승격하여 새 출발합니다.

화물공제조합 경남지부
광주사업소
(2007. 9. 1 ~)

화물공제조합
광주지부
(2020. 8. 1)

- 광주지역 조합원의 자긍심 고취
- 광주지역 조합원에 대한 원활한 공제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차주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광주지부로 거듭나겠습니다.”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김옥상



대구화물협회 부회장 김동석, 인천화물협회 부회장 심재선, 대전화물협회 부회장 김기승, 전남화물협회 부회장 박종기, 서울화물협회 감사 신해수, 울산화물협회 감사 김명기, 경기화물협회 감사 고달원



광주화물협회 이사장 최경석, 경남화물협회 이사장 최광석



부산화물협회 이사장 신훈, 강원화물협회 이사장 전수산, 충북화물협회 이사장 민경현, 충남화물협회 이사장 최일운,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양봉식, 경북화물협회 이사장 김화일, 제주화물협회 이사장 고영철,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강성일, 세종화물협회 이사장 임영수, 전국화물공제조합 이사장 서훈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